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춘천지방검찰청
강릉지청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안현선
전화 033-660-4304

보도자료
2022. 3. 30.(수)

제 목

강릉 옥계·동해 산림 방화사건 수사 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- 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개금지정보(제11조 제2항 제3호)
- ※ 2022. 3. 29.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(지청장 정희원)은 어제(3. 29.), 마을주민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주택, 산림 등에 불을 질러 강릉 옥계·동해 일대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죄, 산림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음
- 검찰은 다수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, 대검 심리분석 등을 통하여, 피고인이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으로 마을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명확히 규명하였음
- 또한, 강릉 검찰은 강릉시청, 강릉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면밀히 소통하여 피해자 지원 방안을 협의하였고 주택과 산림 전체 피해액이 394억 원에 달하는 점을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반영하였음
- 향후에도 강릉 검찰은 지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행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예정임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① 피고인

- A○○(59세, 무직)

② 공소사실 요지

- '22. 3. 5. 01:00경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피고인과 마을주민들의 주택 등에 불을 질러 소훼하고, 손도끼로 마을주민들의 주택 등을 손괴하고, 산림에 불을 질러 합계 4,190헥타르의 산림을 소훼함으로써

【현주건조물방화, 산림보호법위반, 특수재물손괴 등】

※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강릉지역에 주택 6채, 산림 1,455헥타르 소훼 등 피해 금액 합계 111억 원 상당, 동해지역에 주택 74채, 산림 2,735헥타르 소훼 등 피해금액 합계 283억 원 상당의 피해가 각각 발생하였음(총 피해금액 합계 394억 원)

2

수사 경과

- 3. 5. 사건발생, 피고인 현행범인 체포
- 3. 6. 피고인 구속
- 3. 11.~25. 검찰 송치, 보완수사요구 및 직접 보강수사
 - 피해산림 면적 등 피해내역 명확히 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하고, 사건 관계인 조사, 추가 압수수색, 대검 심리분석, 현장검증, 유관기관 회의 등으로 직접 보강수사
- 3. 25. 추가범행 인지(현주건조물방화예비)
- 3. 29. 구속 기소

① 심리분석 등을 통한 범행 동기 및 경위 규명

- 피고인 2회 조사, 마을주민,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, 피고인의 가족 등 다수의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, 현장검증 및 대검 심리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이용하여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음
 - 피고인은 '85.경 사육하던 소가 죽게 되자, 별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마을 주민 B○○ 등이 청산가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를 죽였다고 의심하고 마을주민들에 대한 불만을 품은 채 고향을 떠나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였고,
 - '16.경 고향으로 돌아와 타인의 토지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중, 토지 소유자로부터 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주택에서 나가달라”는 말을 듣자, 별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위 소유자의 먼 친척인 주민 C○○이 주도하여 자신을 위 주택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생각하였고,
 - '21. 가을 무렵 결국 위 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피고인과 마을주민들의 주택 등에 방화할 마음을 먹고, 건조상태 등에 비추어 불이 잘 붙을 만한 날을 미리 선택하고 부탄가스 토치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음
- 대검 심리분석 결과,
 - 주택과 토지 문제에서 시작된 피해의식이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연결되었으며,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유발된 것으로 확인됨
 - 누적된 적대감은 집에서 쫓겨날 시점이 다가온다는 스트레스로 가중되어 극단적인 정서 표출로 이어져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

② **유관기관 협력 및 현장검증 등을 통한 피해상황 확인**

- 산불 진화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피해범위가 광범위하여 경찰 송치 당시 피해상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,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하여 산림피해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, 시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내역 파악 등을 적극 협의하는 등 주택과 산림 전체 피해액이 394억 원에 달하는 점을 확인하였음
- 또한,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릉·동해시청에서 보관중인 피해 진술·현장사진 등이 포함된 피해신고서 전체를 확보하는 등 산불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, 현장검증에서 마을주민들을 만나 피해상황, 처벌의사 등 생생한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 처분에 적극 반영하였음
- 한편, 범행장소 중 한 곳에서 유리창을 깨고 토치로 불을 붙이려던 범행에 대하여, 피고인이 방화 목적으로 그곳을 찾았다가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 미처 불을 붙이지 못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,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추가 범행으로 인지함

4 **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**

- 대검 심리분석, 현장검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범행동기 및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였고,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신고서를 확보하고, 시청 등 유관기관 회의 개최, 경찰 보완수사요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함으로써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건 처분에 반영하였음
- 강릉 검찰은 향후에도 지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행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고,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게 공소유지에 주력하는 한편,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, 법정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임 ☐